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추수감사절 】

전 주 .....	반주자
감사의 노래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 다 감사드리세 .....
♣ 공동기도 .....	다함께

좋으신 하나님, 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과 과일을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로운 돌보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저희 주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감사의 침묵기도 .....	다함께
♣ 감사의 말씀 .....	시145:8-10 .....
♣ 교 독 문 .....	65. 감사절(2) .....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대표기도 .....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07.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성경봉독 .....	시119:49-56 .....
감사의 향기	
한마디의 감사	아동부
감사 찬양	풍요로워요 아름다워요
	주가 보이신 길
	아름다운 세상
	예수가 함께 계시니
	아동부
	중고등부
	여선교회
	원로선교회
말 씬 .....	우리의 노래 .....
거듭기도 .....	김기석 목사
	다같이

헌신의 찬송 ..... 517. 생명 진리 은혜 되신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주님께 받은 말씀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말고 생활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두운 길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쁨을 나누며 살  
 아가겠습니다. 주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찬양의 가을 걷이	11월 기도의 밤
성가대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박애순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진 박재실 박효선 고숙이 박경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훈동 김필순 송양진 박홍재

## 빛은 빛이다

아무도 따 가지 않은 / 꽃 사과야,  
너도 나처럼 빛 갠으며 살고 있구나  
햇살과 바람에 붉은 살 도로 내주며  
겨우내 시들어 가는구나

월급 타서 빛 갠고 / 퇴직금 타서 빛 갠고  
그리고도 빛이 남아 있다는 게 /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 놓인다

빛도 오래 두고 갠다보면 / 빛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  
빛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 / 사과가 되지 못한 꽃 사과야

그리고도 못다 갠으면 / 제 마른 육신을 남겨 두고 가면 되지  
저기 좀 봐, 꽃 사과야  
하늘에 빛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  
언덕에 빛진 눈이 / 조금씩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 - 나희덕

이 세상 살면서 빛지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 나는 오늘 아침에 달콤한 포도를 먹으며 포도에게 또 빛을 졌다. 밥을 먹으며 밥에게 빛을 지고, 사과를 먹으며 사과에게 빛을 졌다. 내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건 아마 가을 햇살에게 빛진 덕일 게다.

내가 이 만큼 자라고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빛진 덕이요, 아버지에게 빛진 덕이다. 오늘도 아내는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이것저것 나를 챙겨준다. 아내에게 빛진 덕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나의 하루는 풀벌레, 가을 햇살, 바람과 구름, 물과 나무, 아내와 이웃집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빛을 지며 살아온 '빛진 하루'였다.

나는 단 한순간도 누군가에게 빛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빛진 존재'

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서로에게 빛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작은 돌멩이에서 밤하늘 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에게 빛지며 사는 존재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 내가 누군가에게 빛진 존재로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께 빛을 졌구나, 내 벗에게, 꽃과 바람에게, 하늘과 땅에게 오늘도 빛을 지며 살았구나, 이렇게 나는 모두에게서 빛지며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빛진 인생이라면 또한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할 존재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먹은 밥, 내가 받은 빛을 도로 갚으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늘 빛진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 빛을 갚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 빛을 갚고자 하는 근원적 힘이 아닐까. 내가 가을 햇살을 받고 가을 산에 젖어들고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내 마음이 맑아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눈물나게 고마운 것은, 저들에게 이렇게 내가 빛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이 빛은 아름다운 빛이요, 저들과 내가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빛, 은총의 빛, 황홀한 빛이다. 우리는 이 빛을 두고두고 갚아야 하고, 조금씩 갚아야 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빛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사랑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요, 아직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기에 더 아름답게 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빛이 빛이 되는 세상,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남아 있는 빛에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진 빛은 나의 빛이 되고, 온 우주 만물에게 내가 진 빛은 생명의 빛이 된다. 이렇게 그대와 나는, 우주와 나는 빛진 존재가 되어 빛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진 빛을 갚을 길이 없어 마른 육신 십자가에 남겨 두고 홀로 가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진 빛을 어찌 갚으며 살 것인가. 하늘에 빛진 새가 날아가듯, 빛진 나무가 붉게 단풍 물들 듯, 오늘 빛진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말이다.

- 채희동 목사

■ 마/음/으/로/읽/는/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 원 하 신 주 감 사 모 든 것 주 심 감 사  
 응 답 하 신 기 도 감 사 거 절 하 신 것 감 사  
 길 가 에 장 미 꽃 감 사 장 미 꽃 가 시 감 사

지 난 추 억 인 해 감 사 주 내 결 에 게 시 네  
 헤 쳐 나 온 풍 랑 감 사 모 든 것 채 우 시 네  
 파 스 한 파 스 한 가 정 최 망 주 신 것 감 사

향 기 로운 봄 철 에 감 사 오 로운 가 을 날 감 사  
 아 픔 과 기쁨 도 감 사 절 망 중 위 로 감 사  
 기쁨 과 슬픔 도 감 사 하 늘 평 안 을 감 사

사 라 진 눈 물 도 감 사 나의 영 혼 평 안 해  
 축 랑 못 할 은혜 감 사 크 신 사 랑 감 사 해  
 내 일 의 희 망 을 감 사 영 원 토 록 감 사 해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홍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박옥식 방현복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중수 이순정 김인걸 문영혜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김용진 박효선 고사일 최영선 백묘현  
 김지호 김지윤 방 민 박정숙 김순복 전영웅 박홍엽 홍순구 안홍숙  
 노용래 차혜심 김애경 염혜영

###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서재홍 박현우 정미경 이동천 김명순 황경순 김남중  
 오복순 김창원 정지은 왕수명 이소순 김성자 전영규 김경수 김 극  
 이봉배 이경남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박범희 박미영 임수연 임원민  
 노미향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김기석 김재홍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김중훈 안경숙 이정은 문금석  
 이순정 시므온선교회 나오미선교회 푸른어린이도서관

### 생일감사헌금:

방문성 노용래 하정석 하인경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최 희 영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이 영 옥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추수감사주일** : 오늘은 한 해의 열매를 헤아리며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2. **찬양의 가을걷이** : 오늘 오후 집회는 성가대가 마련한 찬양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3.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4. **부장회의** :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5. **기도의 밤** : 11월 기도의 밤이 9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도 가운데 정리합시다.
6. **후원자 축제** :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비정부기관 10곳을 소개하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장입니다. 작은 음악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2시에 열립니다.
7. **여선교회 바자회** : 선교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선교회 바자회가 20일에 열립니다. 밀반찬, 젓갈류 등을 판매합니다.
8. **신앙실천** :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적어도 하루 한 번!

\* 현화 : 조병무 장로 (조기원 장로님 추도일)

\* 추수감사절 떡 : 조해린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